

“설 선물 사전예약 하세요”... 유통가는 벌써 설 판촉전

이마트 40일간 예약·판매 돌입
한우 실속세트 20% 등 할인 확대

SSG닷컴 단독선물세트 추가 준비

롯데마트 한우·과일 등 337품목

홈플러스 3만~5만원대 비중 확대



이마트 직원들이 설 선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쇼핑

과거에는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거래처나 임직원 선물용으로 대량 구입을 원하는 기업·법인 고객이었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명절 선물세트 구매패턴이 바뀌면서 사전예약 판매비중이 본 판매를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주요 대형마트들은 사전예약 판매 기간과 혜택을 늘려 명절 선물세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설을 51일 앞둔 오는 12월 5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40일간 이마트 전국 141개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총 310여종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이마트는 ‘얼리버드’ 상품권 증정 혜택 기간을 늘리는 한편 사전예약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주력 대품 사전 비축과 산지 선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한우 실속세트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과일 중저가 세트 물량을 두 배 확대했다. 또한 수산 ‘피코크’ 프리미엄 세트를 도입하는 한편 통조림 세트의 법인고객 등 대량구매객의 상품권 증정 등 추가혜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마트는 이번 예약판매 프로모션으

로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IBK기업·씨티·광주·전북·SC은행이마트)로 인기 세트 구매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기간에 따라 구매 금액 대별로 구매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SSG닷컴 내 이마트몰에서도 같은 기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진행한다. SSG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선물세트를 추가로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안동사과세트 2호’, ‘천안배세트 2호’, ‘사과배혼합선물세트 7k

g’ 등이 있다.

롯데마트도 오는 12월 5일부터 1월 13일까지 마트 전점 및 롯데마트몰에서 2020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전예약품목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104종과 통조림, 식용유 등 가공식품 132종, 삼푸, 양말 등 생활용품 101종 등 총 33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엘포인트(L.POINT) 회원 및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 신한, 농협NH, 현대, 씨티카드 등으로 구매 한 고객에게는 정상이 대비 최대 30%

할인해 준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전예약판매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 선물세트와 함께 가성비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고려한 선물세트도 선보여 ‘한우 정육세트(2호)’를 9만9000원에, ‘천일염 참굴비 세트 2호’를 9만5000원에, ‘충주 사과·천안배 세트’를 4만원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으며, 내년 1월 13일까지 47일간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전 채널을 통해 2020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 품목은 지난해보다 80여종, 율추석보다는 30여종 늘어난 총 440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상품은 1만원 미만 저가부터 40만원 고급 라인까지 폭넓게 구성됐으며, 특히 김영란법을 넘지 않으면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3만~5만원대 선물세트 비중은 32.3%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F/W시즌 패션상품 본격 세일

CJ ENM 오쇼핑부문

니트원피스 등 의류 최대 50%

CJ ENM 오쇼핑부문이 가을/겨울(F/W) 시즌 패션 상품의 세일에 본격 돌입했다. 니트원피스, 알파카코트, 구스 롱다운 등의 의류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브랜드에서는 지난해보다 1~2주 빠른 11월말부터 세일 판매를 진행 중이다.

‘엠티(A+G)’는 대표 상품인 블루 폭스퍼 헝가리 구스다운을 7만원 이하해 27만 9000원에 판매하며, 풀오버, 원피스, 스커트 등 이태리 소재의 니트류들도 20~30% 세일한 가격에 선보인다. ‘지오송지오’는 핸드메이드 슈트를 50% 인하 가격인 7만

4500원에, 겨울철 활용도가 높은 슬림핏 니트 풀오버 4종 세트도 20%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칼라거펠트과리스’는 헝가리 구스다운 코트와 캐시미어 데님 등을 할인하는 세일 특집 방송을 7일과 13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다하리’도 이태리 알파카코트를 5만원 인하한 23만 9000원에 오는 9일 방송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남성의류와 스포츠의류도 세일에 돌입한다. ‘다니엘 크레뮤’는 겨울철 필수템 인다운 소재의 외투 중심으로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美 나파밸리 ‘오비드’ 42명 한정판매

나파밸리 특급 컬트와인 ‘오비드’가 한국에 오직 42명 한정 판매된다.

하이트진로는 미국 컬트와인 오비드 플래그십 와인인 ‘오비드 나파밸리’와 ‘오비드 익스페리먼트’ 등 2종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컬트와인(Cult Wine)은 지난 20년 사이 나파밸리의 소규모 와이너리에서 생산을 시작한 최상급 와인으로 생산은 소량이지만 품질이 뛰어나 부티크 와인(Boutique Wines)이라고 불린다. 1990년대 초중반 최고급 컬트와인들이 출시되자 와인 평론가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퍼커가 100점을 주는 와인도 등장했다.

특히 컬트와인은 구매자 명단

리스트에 등록돼야 구매가 가능한 독특한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어도 와인을 살 수 없어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 구매 명단 리스트는 회원의 사망 및 파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만 충원을 받기도 해 대기리스트가 길고, 일부 와이너리는 폐쇄해버린 곳도 있다.

오비드는 연간 2000상자(12병=1상자) 가량만 생산돼 매해 생산과 동시에 완판되는 제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된다는 나파밸리 프리차드 힐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오비드 나파밸리’는 2014년 빈티지로 633상자 한정 생산된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백화점이야 갤러리아~ 유명 작품이 ‘한곳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문화 체험공간 아틀리엘 오픈 시즌별 국내외 작가 작품 전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차별화된 문화 공간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지난달 19일 문화 체험 공간인 ‘아틀리엘(Ateli-el)’을 오픈했다. 아틀리엘은 5층 고객 휴게시설에 조성된 전시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롯데갤러리 전시와 연계, 시즌별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한, 인천터미널점은 고객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공간인 ‘엘리베이터홀’을 유명 작가의 갤러리로 변신시켰다. 현재 해당 공간은 국내에서 촉망받는 ‘임태규’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화려한 색채와 상상력이 가득

한 인물화가 고객들을 매료시킨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이처럼 매장 내 판매 공간이 아닌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체류 시간 및 방문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아틀리엘’과 ‘인천터미널 롯데갤러리’는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그림책 작가 네 명의 생동감 넘치는 원화 100여 점과 디지털프린트, 원서 그림책과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그림책을 함께 소개하는 ‘북유럽 일러스트레이션展’을 진행한다. 해당 전시는 일상의 작품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북유럽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인천점 아틀리엘(위)과 엘리베이터홀. /롯데쇼핑

미샤, 국내 화장품 첫 이라크 시장 진출

미샤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 처음으로 이라크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자유나몰(Zayoon Mall)’에 미샤 1호 매장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라크 미샤 1호 점 자리잡은 자유나몰은 1일 방문객이 2만5000명에 이르는 바그다드 동부 지역 최대 규모 종합 쇼핑몰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라크 화장품 시장은 현재 태동 단계로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쇼핑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진출 의의를 설명했다.



미샤

/에이블씨엔씨

이라크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0°C가 넘는 기온과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날씨 때문에 피부손상 및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고기능 스킨케어 화장품이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시그니처 우동 출시

CJ제일제당이오는 2020년 간편식 우동 출시 20주년을 맞아 ‘시그니처 우동’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시그니처 우동’은 우리나라 간편식 우동의 원조 격인 ‘가쓰오 우동’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시그니처 우동’은 지난 20년 간 쌓아 온 CJ제일제당 간편식 우동의 기술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이다. 면과 육수, 건더기(고명)의 3대 핵심 요소에 집중해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



/박인용 기자